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009년 12월 26일

<제1독서> 집회서 3,2-6.12-14<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제2독서> 골로새서 3,12-21<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생활>

화답송

◎ 주님, 당신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나이다.

○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얼마나 사랑스럽나이가! 주님의 뜨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워어 가나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 나이다. ◎

○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

○ 주 만군의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루카 2,41-52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오늘의 성가] 입당: 107 봉헌: 106 성체: 112 파견: 120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심윤필 베르나도, 황권희 클라라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 해설: 함승효 베네딕다

다음주 미사 해설: 미정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304

교무금: \$ 2000

달력판매: \$ 81

합계: \$ 2385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성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 그리고 요셉 성인께서 함께 사셨기에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세 분께서 ‘사셨다는 이유’ 때문에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 분께서 ‘성가정의 사람답게’ 사셨기에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삶이 그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불화가 생기면 성가정에서 탈락되고 화목 속에 살아야만 성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면 모두가 성가정입니다. 가족이 주는 아픔을 ‘주님의 힘’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성가정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사흘이나 헤매고 다니셨습니다. 성전에서 자식을 무사히 찾아 안도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대답에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게 될 것이라는 시메온의 예언이 점점 실현되고 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칼에 꿰찔리는 아픔으로 봉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자식은 한동안 부모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부모는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받아들입니다.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가정의 모습을 닮아 갑니다.

† <생명의 말씀>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한 가정의 중심은 과연 누구일까요?(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어르신)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최고이며 중심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IMF 경제위기 때 본당에서 지켜본 가정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실직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정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생활로 변해 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정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은 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성당에 나왔으며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점 하나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는 엄마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 가정은 엄마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가정의 중심은 바로 어머니요, 아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직장사목을 할 때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들과 피정 중에 어느 형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가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물론 이곳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 3 자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아빠, 아버지’로 함께 계실 때 성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결혼이 아닐까요? 전 혼배 미사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림을 보여 드립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 “까만 점이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흰 종이에 까만 점 하나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흰 부분이 까만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까만 점은 서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뜻하며, 흰 부분은 장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단점이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점도 서로를 하나로 뭉쳐주는 구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모습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 그리고 이웃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소풍에서 보물찾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구석을 찾았는지요? 또 보물을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보물을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물을 찾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이 ‘가정 성화 주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가정공동체 내의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 ❖ 지난 24일 성탄절 미사후 저녁 식사와 성탄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성당 달력이 나왔습니다. 매주 미사후 지하 친교실에서 1부당 \$5 (2부 사시는 경우 \$8)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 ❖ 오늘 미사중에 매월 마지막주에 있는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모아지는 2차 헌금은 우리 공동체가 매년 St. Paul 본당에 내는 성당사용료 (\$2000 - \$3000)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2차 헌금을 위한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생명은 내어줌으로써 의미와 충만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내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인간이 나누어 받고 있는 생명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에서 ‘생명의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일에서 성부께 순명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한13,1), 그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버릴 때 그 생명은 핵심과 의미와 충만함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에게 생명은 소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소명은 현세의 생명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향한 여정에서 현세의 생명은 그 출발점이자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현세의 삶의 의미와 충만함을 얻을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완전한 충만함’을 이루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목상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촉구로 변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도 내어줌으로 충만하게 되는 생명의 신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생명의복음2항, 51항참조).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엔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49).